



배 풍경

‘수채화 외길’ 박철교 초대전

23~28일 대구백화점 대백플라자갤러리

60년간 수채화 외길을 걸은 박철교(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씨가 23~28일까지 대구시 대구백화점 대백플라자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15번째인 이번 전시회에서 박씨는 수채화가 주는 맑은 느낌을 짜임새 있는 구도로 표현한 1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2000년 정년퇴임을 한 후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동해안 등지를 돌며 화폭에 담은 국내 풍경이 주된 주제다.

그는 그동안 국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과 바다의 풍경을 사실적인 묘사로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박한 묘사에 빛을 강조한 신작들을 전시한다. 거칠고 투박하게 풍경을 묘사해 여백을 살리는 농익은 화법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박 씨는 1968년부터 약 150차례 초대전 및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회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수채화 협회 교문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주의 활화산 4·19혁명 잊지 마세요”

유족회, 자료집 발간 무료 배포



4·19 민주혁명 유족회 광주·전라지부(부부장 윤순덕)가 4·19 민주혁명 48주년을 맞아 ‘영원한 민주주의의 활화산’(나노기획)을 발간했다.

당시 현장사진과 함께 화보형식으로 제작된 이 자료집은 ‘2·28 대구학생시위’부터 시작해 4·19 민주혁명의 당위성과 당시 호남지역 학생 시위대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이승록 사무처장은 “역사적 의의가 큰 4·19 민주혁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자료집을 출간했다”며 “자료집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와 각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3-0419.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국 문인들 전남서 ‘섬 개발...’ 토론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회장 조수웅)는 다음달 7~8일 신안군 흥도와 흑산도에서 ‘제2회 전국 문학인 초청 전남 기행’을 연다.

첫째날 참석자들은 흥도 등산을 한 뒤 섬개발 전문가인 신순호 목포대 교수를 초청, 섬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 둘째 날은 흥도와 흑산도 일주를 한다. 문인협회는 이번 기행에 참여한 문인들의 참가기를 기행문집으로 엮을 예정이다. 문의 062-363-9956.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리가락 우리마당·도심 속 예술축제·첨단골 열린 음악회...

시민 속으로 파고 든 예술 공연

‘열린 공간에서 즐기는 예술 무대’ 각 공연 단체들이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광주시 광천동 유스퀘어에 가면 흥겨운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주말에는 금남로공원에서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축제가 열린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이하 우리 가락)이 오는 25일 갈초동에 이은 그룹 ‘신시야’와 비보이 무대로 첫발을 댈다.

‘우리가락’은 국악 대중화와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가 사업을 주관한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개 시·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 3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사업비로 1억 8천만원(국비 1억 3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책정받았다.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도드리’는 올해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 공연장에서 무대를 옮겨 오는 10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신진단체로 참여한 가야금 중주단 ‘그린나래’, ‘신시야’ 등과 전통문화연구원 ‘열수’, 박신숙 무용단 ‘돌음’ 등은 비보이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우리소리연구회, 소원국악, 광주 예고국악과, 내뽕소리 민족예술단, 문명자가야금병창단, ‘도드리’, 무등가야금연구회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국악 단체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또 올해는 전북지역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전



올 한해 광주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첨단골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야외공연이 진행된다. 지난 19일 금남로 공원에서 열린 도심속 거리페스티벌 공연 모습./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공연단체들, 유스퀘어·금남로 공원·쌍암공원 등 야외공연 활기

주에서 활동하는 ‘판타stick’, ‘한옥마을예술단 유도’의 무대에 마련했다. 주최측은 그밖에 관객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회 문화상품권과 단소를 증정할 계획이다.

▲도심 속 예술축제=옛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금남로공원에서 매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 동구청은 금요일(돌깨·넷째주)과 토요일(첫째·셋째주) 오후 6시부터 ‘도심 속 거리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광주국악협회의 무대로 올해 공연을 시작한 ‘도심속 거리 페스티벌’에서는 클래식, 무용, 재즈 밴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지역 성악가들로 구성된 ‘문화지킴이 광장’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며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광주실버하모니안, 광주연예예술인협회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어린이날 큰 잔치’와 ‘어버이날 큰잔치’로 꾸며지는 5월 3일과 9일 공연에는 각시탈의 인형극, 비보이 댄스, 마술쇼, 극단 얼·아리의 ‘투맨쇼’, 난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10월 7일~12일까지 열리는 충장로축제 기간 중에는 금남로 공원을 비롯해, 충장로 등에서 매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밖에 문화지원봉사자들이 꾸려가는 첨단골 열린음악회 역시 야외 공연을 진행중이다. 겨울 동안 예일의 집, 광주희망원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던 첨단골열린음악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광산구 쌍암공원 무대에서 공연을 갖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엔 재즈 탱고”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21~25일 드앵아트홀 정기연주회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태은 전남대 교수·시진)은 해마다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집중탐구해 왔다. 지금까지 베토벤, 쇼팽, 브람스, 모차르트 등을 거쳐왔다.

21일~25일 오후 7시30분 드앵아트홀에서 열리는 14회 정기연주회의 주제는 ‘재즈 탱고’다. 회원들은 다소 무거웠던 고전음악에서 벗어나 화려한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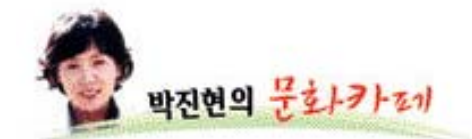
과 멜로디로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탱고의 대명사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비롯해,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작 코리아의 ‘스페인’, 에디 히킨스의 ‘술과 장미의 나날’ 등이다.

강윤숙 재즈 퀸텟이 특별출연하며 이수연(바이올린)·오승석(비올라)씨가 피아니스트 이상록(21일 공연)씨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 사계를 들려준다.

▲21일=강서정·한승희·임리라·김경애·범영숙·이태은·이주영 ▲22일=김혜진·장은정·조연아·최유란·장여은·김윤숙·윤은주 ▲23일=오지영·이근영·황성순·이주희·권현진·이혜영·문현옥 ▲24일=조미자·송지혜·김현진·함지연·황재선·박원영·김정아·이랑 ▲25일=이영아·박지현·김은영·김개화·김향정·박수미·유정리. 같은 레퍼토리로 오는 5월 10일 서울 이원아트홀에서 연주회가 열리며 가을에는 ‘프랑스 음악’을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문의 062-234-37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르네상스’를 위하여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에는 요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선두주자는 지난해 7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중국 국가대극원’. 천안문 광장 인근에 들어선 대극원은 연 건축 면적이 14만9천520㎡인,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오페라 하우스’다. 세계적인 건축가 폴 앤드류의 손에서 탄생한 티타늄 소재의 독특한 외형은 베이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극원이 시선을 끄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중국의 야심이다. 경제대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상하이 오리엔탈 아트센터, 푹피우센터 상하이 분관 등을 발판으로 ‘차이나 르네상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문화발전 청사진을 담은 ‘국가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년~2010년)으로 자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막강한 문화실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붓글씨, 산수화, 경전 등 전통 문화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총 1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창의 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문화예술 창의 기반과 도시 인프라를 구축, 세계인들의 감성을 끌어당기는 서울만의 매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물과 공기처럼 흐르는 문화환경을 조성, 뉴요커와 파리시민 못지 않는 ‘서울시민’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살피우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는 지금 문화를 동력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전쟁’이 한창이다. 주요 도시들은 ‘한번쯤 가보고 싶은’ 인프라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문화는 단지 유행의 ‘상품’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미의식, 철학, 이미지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의 합(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떤가? 아시아의 문화수도라 지향하지만 문화환경은 척박하기만 하다. ‘2007년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공연행사는 총 251건. 서울(2천678건), 경기(481건), 부산(387건), 대구(327건), 전북(261건)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다. 문화환경의 제1척도인 전시행사 역시 대구(632건), 부산(380건)에 크게 못미치는 171건으로 ‘미술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문화 광주를 갈망하는 목소리는 뜨겁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비엔날레 등 ‘히려기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화도시의 매력을 갖추려면 풀뿌리 문화환경도 풍성해야 한다. 화려한 볼거리 만으로는 ‘광주 르네상스’의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린던악국시거리 154-0600</p> <p>1관 스트리트 킹 (18세) 최고급관 2관 테이큰 (18세) 3관 천일의 스캔들 (15세) 연의황후 (15세) 4관 나이슈는공기 (15세) 나이슈는공기 (18세) 5관 GP506 (18세) 6관 어웨이크 (15세)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7관 패솔로지 (18세) 8관 킬 위드 미 (18세) 9관 삼국지-용의부활 (15세)</p> <p>광주점 무료팝콘 행사 종료했습니다. *이프유 주저할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음극 부패</p>	<p>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www.entercinema.co.kr *노고관만 국내 최대 300대 *크로소시영 *은 기종의 편안한 문화공간*</p> <p>1관 GP506 (18세) 2관 그레이스스토리 (12세) 3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4관 에베일그레이트 (15세) 10,000BC (15세) 5관 킬 위드 미 (18세) 6관 추격자 (18세) 7관 천일의 스캔들 (15세)</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18세) 해남점 (무역화관) (15세)</p> <p>1관 GP506 (18세) 2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나이슈는공기 (15세) 3관 연의 황후 (15세) 4관 삼국지: 용의부활 (15세) 5관 킬 위드 미 (18세) 6관 바퀴리스트 (12세) 천일의 스캔들 (15세) 7관 스트리트 킹 (18세) 8관 패솔로지 (18세) 9관 테이큰 (18세) 10관 스트리트 킹 (18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8세) *전국 100여점 *상권연결망 4천여점 *편</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패솔로지 (18세) 2관 킬 위드 미 (18세) 3관 스트리트 킹 (18세) 4관 스트리트 킹 (18세) 삼국지 (15세)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5관 나이슈는공기 (18세) 연의황후 (15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GP506 (18세)</p> <p>*매일실야 상영합니다* *무선주저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세션별 시무(모집)시-오(18세) ARS 전화예약 1544-0070</p>	<p>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박스 ☎ 267-7777</p> <p>1관 경축우리사랑 (15세) 추격자 (18세) 2관 10,000BC (15세) 3관 어웨이크 (15세) 4관 속영 (18세) 5관 연의 황후 (15세) 6관 천일의 스캔들 (15세) 7관 테이큰 (18세) 8관 스트리트 킹 (18세) 9관 GP506 (18세) 10관 삼국지-용의부활 (15세)</p> <p>*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385 메일 실야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하이 수영장 288-5757 *해미 불빙점 262-0825 *하이 골프점 251-5060 *영리관 예약점 261-2000</p>	<p>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천일의 스캔들 (15세) 2관 연의 황후 (15세) 3관 스트리트 킹 (18세) 4관 삼국지-용의부활 (15세) 5관 GP506 (18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추격자 (18세) 8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9관 킬 위드 미 (18세)</p> <p>*리비시드호텔 무등주저관구 수당 3시간 무료주저 *명품스화원권을 위한 전용구역 마련 *영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p>	<p>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p> <p>1관 스트리트 킹 (18세) 2관 GP506 (15세) 3관 킬 위드 미 (18세) 4관 테이큰 (18세) 5관 추격자 (18세) 도레미파솔라시도 (12세) 6관 연의황후 (18세) 삼국지 (15세)</p> <p>*무선주저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너타워주저)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227-1960</p>
---	--	--	---	---	---	---